지상백고좌

월정사 회주 연암 현해 대종사

“날마다 지극히 기도하라…열반에 이를지니”

12면에 이어

현해 스님께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법문을 청했다. 스님은 ‘안수정등(岸樹井藤)’의 비유를 들려줬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 미친 코끼리를 만났다. 어디 숨을 데가 있나 둘러보다가 우물을 발견했다. 급하니까 드리워진 등나무를 타고서 우물로 내려갔다. 내려가다가 아래를 보니 독사들이 우글거리는데 입을 벌리고 물려는 태세였다.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미친 코끼리가 기다리고 있고, 내려가려는데 밑에서는 독사들이 있었다. 그때 우물 중간에 흰 쥐, 까만 쥐가 나와 가지고 등나무 줄기를 깎아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등나무 줄기가 끊어지면 죽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그 순간에 우물 벽에 벌꿀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꿀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그네는 그 달콤한 꿀맛에 취해 미친 코끼리에게 쫓기고 있음을, 우물 아래에서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도, 생명줄을 깎아 먹는 흰 쥐와 까만 쥐도 다 잊어버렸다. ‘안수정등’의 이야기를 마친 스님은 그 의미를 풀이했다.

“미친 코끼리는 세상 풍파를 말하는 것이고, 흰 쥐 까만 쥐는 낮과 밤을, 넝쿨은 우리의 생명을 뜻해요. 아래로 떨어지면 독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죽어서 지옥으로 갈지 천당으로 갈지 모름을 뜻해요. 꿀은 오욕을 뜻하는데 이런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오욕락에 취해 있어요. 풍파를 만나서 낮과 밤이 바뀌면 언젠가는 죽는 것이 인생살이 아닌가요.”

현해 스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가르침이 담겨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법문이다. 스님은 기도보다는 절 수행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스님께 절 수행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청했다.

“내가 승가대학에 있을 때 여름방학만 되면 남해 보리암에 갔어요. 주지스님의 상좌가 승가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법당에 들어가요. 기도 대신 절을 했어요.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고 1배 하고, 또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고 1배하고 이렇게 해서 108염주를 30번을 돌렸어요. 열이틀 동안 날마다 3240배씩 절을 하고서 보리암을 내려왔지요.”

이렇게 3년을 계속했는데, 어느 날 보니 무릎이 망가져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스님의 말씀에 몸과 마음을 조복 받는 수행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현해 대종사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님은 〈법화경〉에 관련된 책을 비롯하여 여러 권의 저서가 있다. 그중에서 〈조계종사 연구논집〉은 한일불교유학생교류회 상임대표로 있던 현해 스님의 주도로 연구논문을 엮은 것이다. 조계종의 역사를 정화운동 이후로 보고 50~60년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해 스님은 조계종 종조를 신라의 ‘도의(道義) 선사’로 보았다. 중국으로 구법을 갔다가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깨치고 조사가 되어 귀국한 도의 선사를 종조로 내세운 것은 ‘종지 종풍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조계종에 몸담고 있는 출가자와 재가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조계종단의 위상을 높인 것이다.

현해 스님은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보살’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

“상불경보살은 항상 나를 낮추고 남을 존경하는 보살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합장하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경합니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상불경보살의 말에 화를 내면서 ‘거짓말쟁이,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요. 상불경보살은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면서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은사스님 지극히 모시던 노부부 있었다

매일 아침저녁 ‘금강경’ 독송하던 처사

어느 날 독송 중 홀연히 세상을 떠나니

그의 마지막이야말로 해탈, 열반 아닌가

‘상불경보살’의 정신은 누구나 존경받을 수 있는 성품을 다 갖추고 있음을 뜻한다. 여기엔 ‘최상의 인간 존중’ 정신이 담겨있다.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 돈과 탐욕과 권력을 쫓다보니 인간의 존엄성은 땅에 묻혀버린 상태다. 인간은 본래 부처인데 욕심 때문에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면 성불의 길로 가는 것이다.

현해 스님은 불자들이 ‘장자궁자(長子窮子)’의 비유를 통해 ‘내가 바로 부처’임을 깨닫게 되면 좋겠다고 설한다.

장자는 요즈음의 재벌을, 궁자는 거지를 뜻한다. 장자가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은 밥을 빌어먹는 거지가 되었다. 장자는 밥을 빌러 온 거지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내 아들’이라고 했지만 거지는 완강히 거부하면서 도망갔다. 장자는 생각을 내어 거지를 자기 집에서 똥 치우는 궂은 일을 하는 하인으로 부렸다. 장자와 아들은 점차 친해졌고, 장자는 죽기 전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저 하인은 본래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전 재산을 다 물려주었다.

“이 비유에서 장자는 부처님을 가리키며, 궁자는 중생을 뜻합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이지만 어쩌다보니 중생 노릇을 하고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대승불교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살사상을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스님은 장자가 아들에게 청소시키고 똥 치우게 하는 그 본래 목적은 ‘부처’임을 깨우쳐 주려는 것이라 한다. 지금 중생들이 기도하면서 ‘돈 벌게 해주십시오’하는 것은 장자의 아들이 ‘똥 치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기도해서 돈 벌면 뭐 해요?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이 해탈이지요. 부처님은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고 대신에 복락을 주겠다는 원력으로 사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요. 우리도 해탈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스님께 “일상에서 불자들이 어떤 신행생활을 하면 좋은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해탈할 수 있습니까”라고 여쭈니 “일반 신도가 해탈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월정사에 우리 은사스님을 지극히 모시던 노부부가 있었어요. 그 처사님이 은사스님을 알고부터는 꼭 아침에 일어나서 〈금강경〉 한 편 읽고 또 저녁 먹고 나서 자기 전에 〈금강경〉 한 편을 읽었어요. 독송할 때는 방에 홀로 앉아 했어요. 어느 날 마누라가 옆방에서 〈금강경〉 독경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끊어지기에 이상해서 문을 살짝 열어 보았어요. 처사가 책상 앞에서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기에 ‘여보, 여보’ 하고 불러보니 이미 숨이 끊어져 있더래요. 이것이 해탈, 열반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반 불자들도 해탈할 수 있는데 힘이 드니까 안할 뿐이지요.”

그러면서 현해 스님은 일상에서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해보라고 불자와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에게 권했다.

“나는 신도들에게 ‘아침에 일어나거든 세수부터 하고 반드시 밥 먹기 전에 염주를 돌려가면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시라. 그리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반드시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라’고 해요. 염불을 300번이든 500번이든 정해놓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꼭 행하는 생활을 익히라고 합니다.”

현해 스님의 〈법화경〉 법문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내가 바로 부처’임을 자각하고 해탈할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한다는 현해 스님의 가르침이 불자들의 가슴에 꽃 한 송이로 피어날 것이다.

문윤정 / 작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